
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

독일

I.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

1. 농업현황

가. 농업규모

□ 2020년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(Gross Added Value, GVA)는 228억 9,200만 유로(한화 약 30조 8,394억 원)로 전년 대비 16.2% 감소

- 이는 전체 총부가가치(GAV)의 0.8% 수준으로,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0.7~0.9%의 비중을 유지

<농업 부문 총부가가치(GVA) 및 비중(2016~2020)>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구분		2016	2017	2018	2019	2020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GVA ¹⁾	전체	2,822,440	2,936,700	2,822,440	3,449,050	3,336,180	△3.3	4.3
	농업 ²⁾	21,886	26,980	25,706	27,311	22,892	△16.2	1.1
	비중	0.8	0.9	0.9	0.8	0.7	△13.3	△3.0

* 주1 : 당해년가격 기준 GDP

* 주2 : 농축임수산업 포함

* 출처 : 독일 통계청(2021. 6월 기준)

- 동년 농업인구는 전년 대비 1.5% 감소한 57만 7,000명으로 집계
 -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1.3%로 하락한 뒤 3년간 유지되고 있음

<농업 고용인구(2016~2020)>

(단위 : 천 명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 고용인구	43,952	44,543	45,072	45,327	44,665	△1.5	0.4
농업 고용인구	623	615	608	599	577	△3.7	△1.9
농업 인구비중	1.4	1.4	1.3	1.3	1.3	△2.2	△2.3

* 주 : 농업고용인구는 농축임 종사자를 모두 포함

* 출처 : 독일 통계청(2021. 6월 기준)

나.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

□ 2020년 농업 총 생산액은 556억 4,400만 유로(한화 약 76조 3,092억 원)로 전년 대비 0.3% 감소하며 보험세

- 농산물 생산규모는 농업 총 생산액의 48.5%에 달하는 274억 5,900만 유로(한화 약 37조 3,000억 원)로 집계
 - 이는 전년 대비 5.5% 증가한 수준으로, 최근 5년간 농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2.2%의 성장세를 보임
- 축산물 생산규모는 259억 4,000만 유로(한화 약 35조 2,366억 원)로 전체 농업 총생산액의 45.8% 차지
 - 축산물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4.8% 감소하였으나, 최근 5년간 연평균 2.5% 증가

〈농업 및 농축산물 총생산액(2016~2020)〉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농업 총생산액	51,803	56,249	52,731	56,814	56,644	△0.3	2.3
농산물	25,206	25,904	23,613	26,027	27,459	5.5	2.2
(비중)	48.7	46.1	44.8	45.8	48.5	5.8	△0.1
축산물	23,498	27,085	25,732	27,252	25,940	△4.8	2.5
(비중)	45.4	48.2	48.8	48.0	45.8	△4.5	0.2
기타	3,099	3,260	3,386	3,535	3,245	△8.2	1.2
(비중)	6.0	5.8	6.4	6.2	5.7	△7.9	△1.1

* 주 : 농업 총생산액은 서비스 생산액을 포함

* 출처 : 독일연방식품농업부(2021. 6월 기준)

□ 곡물, 뿌리작물 등이 주 생산품이며, 이 외에도 포도(특용작물), 채소류 등 생산

- (곡물류) 전년 대비 2.5% 감소한 4,319만 8,000톤 생산, 이 중 밀 생산량이 51.3% 차지
 -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.9% 감소한 2,217만 톤으로 집계,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2.4% 감소
 - 보리 생산량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25.1%를 차지하는 1,085만 2,000톤으로, 전년 대비 6.4% 감소

-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.8% 증가한 387만 6,000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.0% 차지
- **(뿌리작물)** 사탕무(71.2%)와 감자(28.8%)로 분류되며, 사탕무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.7% 감소한 반면 감자 생산량은 8.9% 증가
 - 사탕무 생산량은 2,861만 8,000톤, 감자 생산량은 1,154만 9,000톤으로 집계
- **(포도)** 특용작물로 분류되는 포도 생산량은 2020년 869만 2,000톤으로 전년 대비 4.4% 증가
- **(채소류)** 주요 채소류 생산량은 208만 1,000톤으로 전년도와 보합세(0.3% 증가), 이 중 당근(38.6%)과 양배추(27.4%)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
 - 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.4% 증가한 80만 2,000톤,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0.5% 감소한 57만 1,000톤으로 집계

〈주요 농산물 생산량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톤, %)

구분	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곡물	곡물 계	45,365	45,557	37,948	44,302	43,198	100.0	△2.5	△1.2
	밀	24,464	24,482	20,264	23,062	22,170	51.3	△3.9	△2.4
	보리	10,731	10,853	9,584	11,591	10,852	25.1	△6.4	0.3
	옥수수	4,018	4,548	3,344	3,664	3,876	9.0	5.8	△0.9
	기타	6,152	5,674	4,756	5,985	6,300	14.6	5.3	0.6
뿌리작물	뿌리작물 계	36,269	45,780	35,112	40,330	40,167	100.0	△0.4	2.6
	사탕무	25,497	34,060	26,191	29,728	28,618	71.2	△3.7	2.9
	감자	10,772	11,720	8,921	10,602	11,549	28.8	8.9	1.8
특용작물	포도	9,069	7,505	10,387	8,325	8,692	100.0	4.4	△1.1
채소류	채소류 계	1,918	2,085	1,811	2,075	2,081	100.0	0.3	2.1
	당근	642	734	625	791	802	38.6	1.4	5.7
	양배추	550	625	459	573	571	27.4	△0.5	0.9
	양상추	169	184	178	188	205	9.9	9.5	4.9
	딸기	129	116	1189	113	152	7.3	34.1	4.1
	오이	214	198	207	188	149	7.2	△20.7	△8.7
	아스파라거스	120	131	133	131	118	5.6	△10.0	△0.5
	콜리플라워	93	98	91	91	84	4.0	△7.8	△2.5
유지류	유채씨	4,574	4,268	3,671	2,840	-	-	-	△14.7

* 주: 2020년 통계데이터가 없는 품목의 연평균 증감률은 2016~2019년을 기준으로 집계(누에콩, 유채씨)

* 출처 : 독일연방식품농업부(2021. 6월 기준)

□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.6% 감소한 782만 톤으로, 이 중 돈육 생산 비중(65.2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
- 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2.4% 감소한 510만 1,000톤으로 집계
 - 뒤이어 가금육 생산이 전년 대비 1.9% 증가한 161만 3,000톤으로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20.6%를 차지하며, 우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6.0% 감소한 34만 5,000톤으로 전체의 4.4% 차지
 - 이 외에도 양과 염소 고기 생산량은 2만 4,000톤으로 집계되어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0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우유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집계되지 않았으며, 달걀은 전년 대비 13.87% 감소한 129억 개가 생산됨

〈축산물 부류별 생산량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톤, 백만 개 %)

구분	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육류 (천 톤)	전체	9,056	8,865	8,723	7,946	7,820	100.0	△1.6	△3.6
	돼지	5,590	5,506	5,348	5,227	5,101	65.2	△2.4	△2.3
	가금류	1,551	1,537	1,594	1,583	1,613	20.6	1.9	1.0
	소	1,099	1,081	1,058	367	345	4.4	△6.0	△25.1
	양·염소	32	32	35	23	24	0.3	4.3	△6.8
	내장	674	603	586	-	-	-	-	-
우유(천 톤)		32,672	32,598	33,087	32,442	-	-	-	△0.2
달걀(백만 개)		14,337	14,478	14,666	14,971	12,900	100.0	△13.8	△2.6

* 출처 : 독일연방식품농업부(2021. 6월 기준)

2. 수출입현황

가. 농식품 수출입규모

□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744억 21만 6,000달러(한화 약 100조 2,587억 원)로 전년 대비 1.4% 증가

-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(13.8%), 프랑스(8.8%), 이탈리아(7.2%), 오스트리아 및 영국(각 7.0%) 순
 - 對네덜란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.4% 증가한 102억 8,774만 6,000달러(한화 약 11조 8,491억 원)로 집계
 - 뒤이어 프랑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0.9% 증가한 65억 1,861만 3,000달러(한화 약 7조 5,081억 원), 이탈리아 53억 3,298만 3,000달러(한화 약 6조 1,425억 원), 오스트리아 52억 1,478만 7,000달러(한화 약 6조 64억 원), 영국 51억 8,209만 7,000달러(한화 약 5조 9,687억 원) 순으로 나타남
- 독일 농식품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에서 0.9% 수준인 6억 8,947만 9,000달러(한화 약 7,941억 원)로 전년 대비 10.4% 감소

〈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('20)	전년비(19/20)	연평균(16/20)
전체	67,446,318	72,428,133	74,485,738	73,355,786	74,400,216	100.0	1.4	2.5
1 네덜란드	9,373,667	10,219,531	10,020,211	9,736,873	10,287,746	13.8	5.4	2.4
2 프랑스	6,026,124	6,480,967	6,845,446	6,462,949	6,518,613	8.8	0.9	2.0
3 이탈리아	5,415,002	5,737,463	5,882,899	5,688,276	5,332,983	7.2	△6.7	△0.4
4 오스트리아	4,600,623	4,940,202	5,313,449	5,204,860	5,214,787	7.0	0.2	3.2
5 영국	4,882,389	5,058,214	5,243,448	4,925,312	5,182,097	7.0	5.0	1.5
6 폴란드	4,226,454	4,746,916	4,634,079	4,467,424	4,558,824	6.1	2.0	1.9
7 벨기에	3,432,721	3,565,969	3,585,865	3,380,408	3,493,726	4.7	3.2	0.4
8 덴마크	2,475,630	2,563,320	2,672,981	2,640,684	2,616,384	3.5	△0.9	1.4
9 중국	1,902,686	1,718,449	1,721,778	2,596,533	2,575,661	3.5	△0.8	7.9
10 스페인	2,221,001	2,438,718	2,531,121	2,488,523	2,383,965	3.2	△4.4	1.8
⋮								
21 대한민국	565,859	704,104	721,327	760,885	689,479	0.9	△10.4	5.1

*출처 : Global Trade Atlas(2021. 6월 기준)

□ 주요 수출 품목은 낙농품(14.3%), 육과 식용설육(11.2%), 곡물 등의 조제품과 베이커리류(10.2%), 각종 조제 식료품(9.4%) 등

-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.0% 증가한 106억 4,674만 1,000달러(한화 약 12조 2,629억 원)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
- 육과 식용설육은 전년 대비 8.9% 감소한 83억 146만 9,000달러(한화 약 9조 5,616억 원)가 수출되었고,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.7% 증가한 75억 8,312만 2,000달러(한화 약 8조 7,342억 원)로 집계
- 이 외에도 조제식료품 69억 7,677만 3,000달러(한화 약 8조 358억 원), 음료·주류·식초 61억 1,037만 6,000달러(한화 약 7조 379억 원), 코코아와 그 조제품 60억 5,859만 6,000달러(한화 약 6조 9,783억 원) 수출

<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(2016~2020)>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		67,446,318	72,428,133	74,485,738	73,355,786	74,400,216	100.0	1.4	2.5
1	낙농품 (HS Code 04)	8,798,893	10,390,778	10,531,063	10,537,287	10,646,741	14.3	1.0	4.9
2	육과 식용 설육 (HS Code 02)	8,475,034	8,987,066	8,547,751	9,116,192	8,301,469	11.2	△8.9	△0.5
3	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(HS Code 19)	6,514,205	7,108,337	7,584,449	7,383,426	7,583,122	10.2	2.7	3.9
4	각종 조제 식료품 (HS Code 21)	5,801,219	6,293,833	6,735,425	6,698,893	6,976,773	9.4	4.1	4.7
5	음료·주류·식초 (HS Code 22)	6,284,334	6,594,248	6,971,222	6,658,253	6,110,376	8.2	△8.2	△0.7
6	코코아와 그 조제품 (HS Code 18)	5,711,009	5,787,046	6,194,441	6,180,797	6,058,596	8.1	△2.0	1.5
7	어류·육류 조제품 (HS Code 16)	3,067,851	3,237,879	3,545,433	3,439,656	3,471,423	4.7	0.9	3.1
8	채소, 과일,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(HS Code 20)	2,893,173	3,152,066	3,470,295	3,314,840	3,323,535	4.5	0.3	3.5
9	커피·차·마테·향신료 (HS Code 09)	2,960,277	3,328,174	3,248,530	3,046,683	3,247,277	4.4	6.6	2.3
10	동물성·식물성 유지류 (HS Code 15)	3,084,108	3,239,244	2,988,906	2,787,205	3,183,815	4.3	14.2	0.8

*주1 :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, 담배 등은 제외함

*주2 :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

*출처 : Global Trade Atlas(2021. 6월 기준)

□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952억 8,943만 달러(한화 약 128조 3,713억 원)로 전년 대비 4.4% 증가

-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(31.9%), 이탈리아(11.7%), 프랑스(10.1%), 스페인(9.8%), 폴란드(8.6%) 순
 - 네덜란드산 농식품 수입액은 237억 5,676만 4,000달러(한화 약 27조 3,583억 원)로 전년 대비 3.7% 증가,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.5% 증가한 86억 8,136만 6,000달러(한화 약 9조 9,975억 원)로 집계
 -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도와 유사한 75억 1,602만 달러(한화 약 8조 6,544억 원) 규모로 집계되었으며, 스페인과 폴란드산 농식품 수출액은 각각 12.2%, 8.8% 증가한 72억 9,789만 8,000달러(한화 약 8조 4,043억 원), 64억 1,678만 9,000달러(한화 약 7조 3,909억 원)로 집계
-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체 수입의 0.1%에 불과한 5,007만 4,000달러(한화 약 577억 원)로 집계되나, 전년 대비 25.9%, 최근 5년간 연평균 17.9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

〈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	83,992,598	90,936,555	94,837,540	91,274,751	95,289,430	100.0	4.4	3.2
1 네덜란드	20,241,134	22,082,169	23,681,392	22,915,460	23,756,764	31.9	3.7	4.1
2 이탈리아	7,352,763	7,967,601	8,395,873	7,999,725	8,681,366	11.7	8.5	4.2
3 프랑스	7,170,409	7,584,939	7,832,487	7,516,832	7,516,020	10.1	0.0	1.2
4 스페인	5,724,045	6,287,073	6,818,973	6,505,419	7,297,898	9.8	12.2	6.3
5 폴란드	4,719,875	5,457,976	6,044,684	5,899,150	6,416,789	8.6	8.8	8.0
6 벨기에	5,887,316	6,495,661	6,385,100	6,085,645	6,109,755	8.2	0.4	0.9
7 오스트리아	3,901,872	4,401,639	4,720,974	4,787,625	5,000,209	6.7	4.4	6.4
8 덴마크	2,787,207	3,173,768	3,145,603	2,986,512	2,835,073	3.8	△5.1	0.4
9 미국	1,915,517	1,992,662	1,914,913	1,994,933	1,856,584	2.5	△6.9	△0.8
10 영국	1,626,745	1,720,151	1,813,706	1,791,151	1,719,515	2.3	△4.0	1.4
⋮								
71 대한민국	25,907	30,903	35,927	39,772	50,074	0.1	25.9	17.9

*출처 : Global Trade Atlas(2021. 6월 기준)

□ 주요 수입 품목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(16.8%), 낙농품(12.8%), 음료·주류·식초(11.4%), 식용의 채소, 뿌리·괴경(10.3%) 등

- 식용 과실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125억 3,219만 3,000달러(한화 약 14조 4,346억 원)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4.8%의 증가세를 보임
- 뒤이어 낙농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.5% 증가한 95억 5,836만 6,000달러(한화 약 11조 93억 원), 음료·주류·식초 수입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84억 7,751만 7,000달러(한화 약 9조 7,644억 원)로 집계
- 이 외에도 육과 식용설육 70억 7,285만 1,000달러(한화 약 8조 1,465억 원), 채소, 과실,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58억 5,702만 1,000달러(한화 약 6조 7,461억 원), 코코아와 그 조제품 51억 4,888만 9,000달러(한화 약 5조 9,315억 원) 등이 수입

<품목별 농식품 수입 현황(2016~2020)>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	83,992,598	90,936,555	94,837,540	91,274,751	95,289,430	100.0	4.4	3.2
1 식용 과실 및 견과류 (HS Code 08)	10,376,586	11,297,169	11,847,163	11,241,115	12,532,193	16.8	11.5	4.8
2 낙농품 (HS Code 04)	7,630,985	9,327,028	9,610,835	9,144,557	9,558,366	12.8	4.5	5.8
3 음료·주류·식초 (HS Code 22)	7,502,101	8,060,794	8,641,752	8,477,058	8,477,517	11.4	0.0	3.1
4 식용의 채소, 뿌리·괴경 (HS Code 07)	6,501,213	6,947,288	7,229,145	7,160,953	7,631,206	10.3	6.6	4.1
5 육과 식용 설육 (HS Code 02)	6,977,678	7,668,612	7,996,110	7,651,669	7,072,851	9.5	△7.6	0.3
6 채유용 종자·과실, 공업·약·사용용 식물 (HS CODE 12)	5,476,901	5,937,917	6,199,077	5,982,357	6,507,327	8.7	8.8	4.4
7 채소, 과실,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(HS Code 20)	5,097,493	5,630,099	5,861,179	5,581,067	5,857,021	7.9	4.9	3.5
8 코코아와 그 조제품 (HS Code 18)	5,172,137	5,037,876	5,150,108	5,167,812	5,148,889	6.9	△0.4	△0.1
9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(HS Code 19)	4,387,167	4,764,645	4,956,986	4,825,045	5,074,486	6.8	5.2	3.7
10 커피·차·마테·향신료 (HS Code 09)	4,589,637	4,828,929	4,468,515	4,141,808	4,435,454	6.0	7.1	-0.9

*주 :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, 담배 등은 제외함

*주2 :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

*출처 : Global Trade Atlas(2021. 6월 기준)

나.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

□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독일 수출액은 7,151만 8,000달러(한화 약 824억 원)로 전년 대비 4.3% 증가

- 이 중 농산물의 비중이 79.8%로 가장 높으며, 수출액은 전년 대비 8.4% 증가한 5,706만 1,000달러(한화 약 657억 원)로 집계
 - 농산물의 對독일 수출액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.9% 성장
- 축산물(1.9%)과 임산물(2.6%)의 수출액은 각각 134만 5,000달러(한화 약 15억 원), 187만 3,000달러(한화 약 22억 원)로 집계
 - 축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3.6%, 최근 5년간 연평균 1.7%로 감소하는 추세이며, 임산물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4.9%, 연평균 6.4%의 감소세

〈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	50,951.9	52,483.2	67,390.9	68,550.1	71,518.3	100.0	4.3	8.8
농산물	39,082.9	37,143.4	49,759.1	52,634.9	57,061.3	79.8	8.4	9.9
축산물	1,443.2	1,862.1	1,963.3	2,026.2	1,345.4	1.9	△33.6	△1.7
임산물	2,445.2	2,194.0	2,596.9	2,494.4	1,872.8	2.6	△24.9	△6.4

*출처 : KATI 농식품수출정보(2021. 6월 기준)

□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(14.3%), 기타 조제품(5.7%), 베이커리류(2.6%), 파스타(2.5%), 김치(1.7%) 등

-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63.6% 증가한 1,024만 9,000달러(한화 약 119억 원)로 집계
 - 2016년 이후 라면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, 5년간 연평균 42.6%의 높은 성장률 기록

〈對독일 수출 상위 5개 품목(2016~2020)〉

(단위 : 천 달러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6/20)
전체	50,951.9	52,483.2	67,390.9	68,550.1	71,518.3	100.0	4.3	8.8
1 라면	2,476.6	3,860.3	5,946.5	6,265.2	10,249.3	14.3	63.6	42.6
2 조제품 기타	1,074.8	1,407.5	1,679.3	3,031.4	4,065.9	5.7	34.1	39.5
3 베이커리류	1,132.6	1,404.6	1,400.8	1,978.6	1,879.7	2.6	△5.0	13.5
4 파스타	891.8	1,083.0	1,403.4	1,739.3	1,758.6	2.5	1.1	18.5
5 김치	181.0	245.2	601.9	543.8	1,190.2	1.7	118.9	60.1

*주1 :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, 담배 등은 제외함

*주2 :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

*출처 : KATI 농식품수출정보(2021. 6월 기준)

Ⅱ. 농식품 시장현황

1. 시장개요

가. 시장규모 및 특성

□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1,573억 6,600만 유로(한화 약 213조 4,261억 원)로 전년 대비 4.3% 증가

-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.2%로, 시장규모는 679억 7,300만 유로로 집계
 - 육류 시장이 258만 500만 유로로 전체 시장의 16.4% 차지
 - 과일류(11.4%)와 채소류(6.4%) 시장규모는 각각 179만 7,400만 유로, 101만 4,700만 유로로 집계
 - 신선식품 중 두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(7.9% ↑) 하였으며, 뒤이어 견과류(7.3% ↑), 뿌리채소·괴경, 과일류(각 5.5% ↑) 순으로 나타남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뿌리채소·괴경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8.3% 증가하였으며, 달걀(5.8% ↑), 견과류(5.3% ↑) 순으로 나타남
-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893억 9,300만 유로로 전체 식품시장의 56.8% 차지
 - 유제품 시장규모가 202억 8,700만 유로로 전체 시장의 12.9% 차지
 - 뒤이어 베이커리류 153억 9,200만 유로,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46억 500만 유로로 각각의 비중은 9.8%, 9.3%로 집계
 - 스프레드류와 스프류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12.8%, 12.1% 증가하여 가공식품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임
 - 이 외에도 소스·드레싱·조미료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.7% 증가한(46억 6,900만 유로(한화 약 6조 3,297억 원), 즉석식품은 51억 7,900만 유로(한화 약 7조 211억 원)로 11.4% 증가
 - 스프레드류, 세이보리 스낵, 즉석식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%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며 가장 큰 성장률을 보임

〈식품시장 규모(2016~2020)〉

(단위: 백만 유로, %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9/20)
전체	141,722.0	144,685.2	146,619.7	150,885.2	157,366.2	100.0	4.3	2.7
신선식품	59,861.7	61,134.2	62,292.3	65,221.9	67,973.2	43.2	4.2	3.2
- 육류	23,480.5	24,164.5	24,316.8	25,043.7	25,804.9	16.4	3.0	2.4
- 과일류	15,316.1	15,576.6	16,179.7	17,036.3	17,973.6	11.4	5.5	4.1
- 채소류	8,483.9	8,644.7	8,841.0	9,770.4	10,146.7	6.4	3.9	4.6
- 수산물	9,079.5	9,080.8	8,999.6	9,168.7	9,631.8	6.1	5.1	1.5
- 달걀	1,412.0	1,499.1	1,584.8	1,677.9	1,767.1	1.1	5.3	5.8
- 뿌리채소·괴경	827.7	866.8	991.4	1,080.6	1,139.8	0.7	5.5	8.3
- 당류 및 감미료	654.8	676.5	718.1	753.5	767.4	0.5	1.8	4.0
- 견과류	516.3	530.9	561.4	590.7	633.9	0.4	7.3	5.3
- 두류	90.9	94.3	99.5	100.1	108.0	0.1	7.9	4.4
가공식품	81,860.3	83,551.0	84,327.4	85,663.3	89,393.0	56.8	4.4	2.2
- 유제품	18,384.2	19,106.4	19,328.3	19,495.6	20,287.2	12.9	4.1	2.5
- 베이커리류	14,682.2	14,896.8	14,944.7	15,102.6	15,392.4	9.8	1.9	1.2
-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	13,600.6	13,547.2	13,545.0	13,618.2	14,605.0	9.3	7.2	1.8
- 제과류	10,311.8	10,467.9	10,353.0	10,487.4	10,415.5	6.6	△0.7	0.3
- 즉석식품(Ready Meal)	4,244.8	4,335.6	4,469.6	4,648.7	5,178.5	3.3	11.4	5.1
- 소스, 드레싱, 조미료	3,904.8	3,981.3	4,074.8	4,179.0	4,668.6	3.0	11.7	4.6
- 세이보리 스낵	3,309.5	3,523.3	3,702.5	3,932.3	4,048.5	2.6	3.0	5.2
- 아이스크림, 냉동 디저트	3,274.1	3,294.4	3,372.1	3,421.4	3,392.3	2.2	△0.9	0.9
- 채소 및 과일 가공품	2,430.1	2,476.0	2,501.8	2,536.8	2,680.8	1.7	5.7	2.5
- 비스킷, 스낵류	1,857.0	1,939.3	1,952.4	2,032.6	2,048.3	1.3	0.8	2.5
- 쌀, 파스타, 면류	1,544.6	1,580.7	1,622.1	1,656.3	1,760.2	1.1	6.3	3.3
- 스프레드류	1,419.6	1,458.9	1,497.0	1,546.5	1,743.8	1.1	12.8	5.3
- 식용유지류	815.0	856.4	890.7	931.3	985.3	0.6	5.8	4.9
- 이유식	940.1	931.6	916.4	911.7	938.0	0.6	2.9	△0.1
- 시리얼	697.0	712.4	716.9	722.5	754.8	0.5	4.5	2.0
- 수프	444.9	442.8	440.1	440.4	493.8	0.3	12.1	2.6

*출처: Euromonitor(2021)

나. 소비인구 및 특성

□ 2021년¹⁾ 인구 수는 7,990만 3,481명, 중위연령은 47.8세로 나타남

- 중장년층(55세 이상) 인구 비중이 38.7%로 가장 높고, 뒤이어 25~54세가 38.6% 차지
- 여성이 전체 인구의 51.81%, 남성이 48.18%를 차지하여 성비는 매우 균등한 수준으로 집계됨

□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4만 2,727달러(한화 약 4,941만 원)로,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

-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은 3만 7,990유로(한화 약 5,254만 원)로 전년 대비 4.9% 감소

<독일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추이(2016~2020)>

(단위: 10억 유로, %)

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5/20)
38,505	39,315	39,821	39,958	37,990	△4.9	△0.3

*출처: WorldBank(2021)

- 평균적으로 순소득 1,000유로(한화 약 137만 원) 이상 ~ 2,000유로(한화 약 275만 원) 미만이 37.1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 - 남성의 경우 1,000유로(한화 약 137만 원) 이상 ~ 2,000유로(한화 약 275만 원) 미만의 비중이 37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- 여성의 경우 1,000유로(한화 약 137만 원) 이상 ~ 2,000유로(한화 약 275만 원) 미만의 비중이 36.9%로 가장 높음

<2020년 1인당 순소득 분포>

(단위: %)

구분	평균	남성	여성
소득 없음	8.1	4.6	11.5
1,000유로 미만	25.4	15.6	35.0
1,000유로 이상 ~ 2,000유로 미만	37.1	37.2	36.9
2,000유로 이상 ~ 3,000유로 미만	18.7	25.1	12.3
3,000유로 이상 ~ 4,000유로 미만	6.0	9.4	2.6
4,000유로 이상 ~ 5,000유로 미만	2.9	4.8	1.2
5,000유로 이상	2.0	3.5	0.5

*출처: STATISTA(2021)

1) 2021년 7월 기준, CIA Factbook

□ 2020년 식품 부문 1인당 연간 소비액은 2,344달러(한화 약 271만원)로 전년 대비 4.6% 증가

-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,551달러(한화 약 179만 원)로 전년 대비 2.3% 증가하였으며, 전체 식품 소비액의 66.1% 차지
 - 육류 소비액이 537달러(한화 약 62만 원)로 전체의 22.9%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
 - 낙농품 및 난류(16.8%), 채소류(12.8%), 과일 및 견과류(10.5%), 유지류(3.1%) 순으로 소비가 이뤄짐
-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9.5% 증가한 740달러(한화 약 86만 원)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33.9% 차지
 -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360달러(한화 약 42만 원)로 전체 식품 소비의 15.4%를 차지
 - 뒤이어 스낵류(9.6%), 편의식품(4.7%), 소스 및 향신료(2.7%), 스프레드 및 당류(1.1%) 순으로 나타남

〈식품 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(2015~2020)〉

(단위: 달러, %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중
전체	2,112.40	2,123.00	2,146.35	2,240.71	2,344.28	100.0
신선식품	1,405.13	1,412.82	1,428.92	1,516.11	1,550.51	66.1
- 육류	483.68	486.83	492.73	498.81	537.18	22.9
- 낙농품 및 난류	363.01	364.22	367.66	371.05	394.69	16.8
- 채소류	271.70	273.26	276.50	279.71	300.92	12.8
- 과일 및 견과류	221.91	223.23	225.91	299.58	246.00	10.5
- 유지류	64.83	65.28	66.12	66.96	71.72	3.1
가공식품	707.27	710.18	717.43	724.60	793.77	33.9
-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	317.24	318.30	321.30	324.26	360.20	15.4
- 스낵류	200.87	202.11	204.60	207.05	226.05	9.6
- 편의식품	94.74	95.67	97.19	98.72	110.17	4.7
- 소스 및 향신료	61.07	61.04	61.38	61.71	64.05	2.7
- 스프레드 및 당류	26.82	26.50	26.33	26.16	26.27	1.1
- 영유아용 식품	6.53	6.56	6.63	6.70	7.03	0.3

*출처: STATISTA(2021)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(수산물,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)

□ 2020년 식품 부문 가계 소비액은 1,758억 1,000만 유로(한화 약 241조 1,726억 원)로 전년 대비 6.4% 증가

- 식품 부문 가계 소비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5.2%의 성장세를 보임

〈식음료 부문 가계 소비액(2015~2020)〉

(단위: 10억 유로, %)

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5/20)
143.78	147.65	151.80	160.63	165.21	175.81	6.4	5.2

*출처: STATISTA(2021)

2. 소비트렌드

□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이 확대되며 육류 소비 감소

- 유로모니터의 설문조사²⁾에 따르면, 이전보다 육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1%에 달해 세계 평균(31%)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
 -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 중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육류 소비를 이전보다 줄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44%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
- 건강을 중시하고 육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채식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
 - 독일은 인도, 이스라엘, 대만,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
 -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선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제품 구매 시 신선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

2) 독일 소비자 573명 대상, Euromonitor International Lifestyle Survey 2020

□ MZ세대³⁾의 주 소비층 부상,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를 증가하도록 만듦

-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접근성이 높아짐
-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약은 온라인 구매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
 - GTAI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코로나 이전 대비 36% 증가하였으며,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식음료 시장은 31.4% 성장
 - 2020년 4분기 독일 유통업체 Lieferando의 온라인 주문은 전년 대비 56% 증가한 5,600만 건으로 집계

□ 유기농과 공정무역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식품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

- 2020년 유기농 식품시장 규모는 약 150억 유로(한화 약 20조 2,910억 원)로 전년 대비 20% 증가
 - 유기농산물 경작지는 전국 농산물 경작지의 약 10%를 차지하며, 2020년 기준 3만 5,000개 이상의 유기농가가 17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를 운영
- 미국의 리서치 기업인 퀀틸로프(Quantilope)의 조사 결과⁴⁾에 따르면, 응답자의 3분의 2가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
 - 또한 독일 공정무역협회(Forum Fairer Handel)에 따르면, 독일인의 71%가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,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

□ 건강까지 고려한 즉석식품의 인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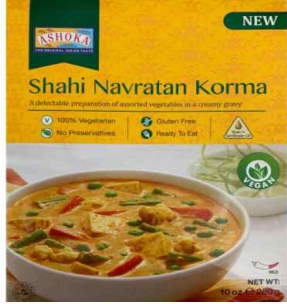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즉석식품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,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내 즉석식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.9% 증가한 110만 톤으로 집계⁵⁾

3) 1980년대 초~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~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,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주관적인 소비를 행하는 것이 특징

4) 독일 소비자 552명 대상, Die wichtigsten Food Trends 2021

-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즉석식품의 인기 증가
 - 채소가 함유된 스프나 통조림뿐만 아니라 볶음밥, 파스타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며, 베지테리언이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된 즉석식품도 인기
-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내 즉석식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.9% 증가한 110만 톤으로 집계⁶⁾

〈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식품〉

		
토마토 스프	채소 볶음밥	채소 코르마 ⁷⁾

*출처: www.get-grocery.com

□ 이민자 수 증가, 해외 문화 유입 확산 등으로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제고

- 2020년 기준 이민자 수는 인구 1,000명당 46명으로, 2010년 1.9명에서 큰 폭 증가
- 해외 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며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
 - 연방이민난민청(BAMF) 기록에 따르면, 무슬림 소비자가 2021년 기준 지난 6년간 약 90만 명이 증가하면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

〈독일에서 판매되는 에스닉 푸드〉

		
카레	터키향신료	할랄식품

*출처: Amazon. de

5) 독일 연방통계청

6) 독일 연방통계청

7) 육류나 채소 등에 요구르트나 크림에 재료를 넣어 만드는 요리

3. 유통현황

가. 유통현황 및 구조

-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시장 규모는 2,357억 유로(한화 약 319조 5,034억 원)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.1%, 전년대비 7.7%의 감소세를 보임
 -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.4%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
 - 이 중 할인점(35.0%)과 슈퍼마켓(30.5)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각각의 매출액은 844억 6,900만 달러(한화 약 114조 3,035억 원), 718억 1,900만 달러(한화 약 97조 1,855억 원)로 집계
 - 현대식 유통채널 중 최근 5년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슈퍼마켓(5.0% ↑)이며, 뒤이어 할인점(3.8% ↑), 포코트리테일러(2.1% ↑), 하이퍼마켓(1.2% ↑), 편의점(0.5% ↑) 순으로 나타남
 -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295억 9,400만 유로(한화 약 40조 466억 원)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시장의 12.6% 차지

<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(2016~2020)>

(단위: 백만 유로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9/20)
합계	208,715.8	214,779.6	221,056.3	255,392.6	235,793.6	100.0	△7.7	3.1
현대식 유통채널	208,715.8	214,779.6	221,056.3	195,882.7	206,199.4	87.4	5.3	△0.3
- 할인점	71,029.70	74,616.70	76,920.10	78,035.50	82,468.50	35.0	5.7	3.8
- 슈퍼마켓	59,046.80	61,172.50	64,202.90	66,797.70	71,818.80	30.5	7.5	5.0
- 하이퍼마켓	36,510.10	36,588.10	36,801.70	37,257.20	38,269.00	16.2	2.7	1.2
- 포코트리테일러	11,932.00	12,266.10	12,854.90	13,060.40	12,950.60	5.5	△0.8	2.1
- 편의점	677.5	690.4	710.2	731.8	692.5	0.3	△5.4	0.5
전통식 유통채널	29,519.7	29,445.9	29,566.6	29,510.0	29,594.2	12.6	0.3	0.1

*주1: 포코트리테일러(Forecourt Retailer) -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

*주2: 하이퍼마켓(Hypermarket): 슈퍼마켓·대형 할인점·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

*출처: Euromonitor(2021)

-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의 경우, 아직까지 홈쇼핑(57.0%)의 비중이 높으나 전자상거래(43.0%)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임
- 홈쇼핑 식품시장 규모는 32억 5,400만 유로(한화 약 4조 4,048억 원)로 전년 대비 4.4%, 최근 5년간 연평균 9.8% 감소
- 전자상거래 식품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24억 5,400만 유로(한화 약 3조 3,219억 원)로 전년 대비 31.4%, 최근 5년간 연평균 23.8%의 높은 성장률 기록

〈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(2016~2020)〉

(단위: 백만 유로, %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비중 (20)	전년비 (19/20)	연평균 (19/20)
합계	5,965.1	5,407.7	5,255.9	5,271.3	5,708.3	100.0	8.3	△1.1
- 전자상거래	1,045.7	1,270.5	1,594.5	1,867.7	2,454.0	43.0	31.4	23.8
- 홈쇼핑	4,919.4	4,137.2	3,661.4	3,403.6	3,254.3	57.0	△4.4	△9.8

*출처: Euromonitor(2021)

나. 주요 유통채널 현황

□ (오프라인) 2020년 현대식 유통채널의 식품 시장규모는 2061억 9,900만 유로(한화 약 279조 1,254억 원)로 전년 대비 5.3% 증가

- (할인점)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도 소비자는 할인점 방문 선호
 -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과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장점은 소비자가 할인점을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 방문율이 높으며, 넓은 부지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는 점 역시 할인점을 찾는 요인으로 작용

〈주요 할인점 브랜드〉

매장명	Kaufland (Schwarz Beteiligungs GmbH)	Real (Metro AG)	Marktkauf (Edeka Zentrale AG&Co KG)	Globus - Maxus (Globus Holding GmbH&Co)
사진				
설립연도	1984년	1992년	1971년	1953년
점유율	41.2%	16.0%	8.4%	7.8%
매장수	664개	270개	104개	47개
홈페이지	www.kaufland.de	www.real.de	www.marktkauf-gelsenkirchen.de	www.globus.de

*출처: Euromonitor(2021)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- (슈퍼마켓) 신선식품 구매 시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슈퍼마켓을 이용
 - 소비자는 도시 외곽 지역 내 대규모 부지에 위치한 할인점과 달리 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을 주로 구매
 - 최근 유기농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, 다수의 슈퍼마켓에서는 유기농 제품 진열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며,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슈퍼마켓의 마케팅 전략은 경쟁력으로 작용

〈주요 슈퍼마켓 브랜드〉

매장명	Edeka (Edeka Zentrale AG & Co KG)	Netto (Edeka Zentrale AG & Co KG)
사진		
설립연도	1898년	1990년
점유율	2.5%	1.6%
매장수	6,746개	4,270개
홈페이지	www.edeka.de	www.netto-supermarkt.de

*출처: Euromonitor(2021)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- (편의점) 독일에서는 보통 저녁 6시 이전에 식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
 - 이에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0.3%에 불과하며, 시장규모 역시 감소하는 추세

〈주요 편의점 브랜드〉

매장명	Yorma's (Yorma's AG)	DB Service Store (DB Station&Service AG)	HDS Hub Convenience (Lagardère SCA)	Spar Express (Internationale Spar Centrale BV)
사진				
설립연도	1985년	1999년	-	1953년
점유율	11.9%	9.8%	10.4%	5.9%
매장수	61개	210개	130개	50개
홈페이지	www.yormas.de	www.my-hub-convenience.de	www.my-hub-convenience.de	www.spar-express.de

*출처: Euromonitor(2021)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□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295억 9,400만 유로(한화 약 40조 623억 원)로 집계,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(0.3% 증가) 유지

- 독일의 전통 식료품 업체는 전통적인 식료품점에서부터 전문 식음료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울렛을 포함
 -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쉽게 품질되거나 규제가 심하여 구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 식료품점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

〈주요 전통시장〉

매장명	Wochenmarkt Muenster	Viktualienmarkt
사진		
홈페이지	www.wochenmarkt-muenster.de	www.muenchen.de

*출처: Tripadvisor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□ (온라인 채널)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.3% 증가한 57억 800만 유로(한화 약 7조 7,258억 원)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침

- (홈쇼핑) 아직까지 전체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소폭 높은 상황
 -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홈쇼핑을 통한 식품 구매는 유지되는 수준으로, 홈쇼핑 구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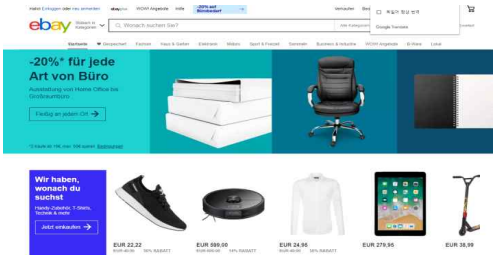
〈주요 홈쇼핑 채널〉

채널명	Bofrost (Bofrost Dienstleistungs)	HSE24 (Home Shopping Europe GmbH)	QVC (Qurate Retail Inc)
사진			
점유율	17.6%	13.5%	15.6%
홈페이지	www.bofrost.de	www.hse24.de	www.qvc.de

*출처: Euromonitor(2021)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- (전자상거래)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시장 활성화 추세
 - 편리하고 신속한 식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는 더욱 증가할 전망
 - 아직까지 배송 인프라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주문 후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, 이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
 - 또한 비싼 배송 서비스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요구

〈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〉

채널명 ¹⁾	Amazon (Amazon.com Inc)	eBay (eBay Inc)
사진		
설립연도	1998년	2002년
점유율	26.7%	9.4%
홈페이지	www.amazon.de	www.ebay.de

*출처: Euromonitor(2021), 해당 업체 홈페이지

Ⅲ. 농식품 정책 및 제도

1. 농식품 관련 정책

□ 2021년 1월 20일 포장재법(VerPackG) 개정안 통과

- 독일 정부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폐기물 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법을 변경하고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
 - 동 법안의 목적은 ①포장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지 및 감소하고 ②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및 포장재 처리에 대해 관계자에 더 많은 책임 부여를 목적으로 함
- 동 법의 의무 적용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음
 - 빈 포장재를 상품으로 채우거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회사
 -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독일 내 판매하는 회사 및 업자
 - 독일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체 상표로 제품을 제조한 회사 및 업자
 - 상품 판매 및 전자 상거래의 배송 상자 등 포장을 추가하는 회사 및 업자
 -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(B2C 전자상거래 등)
- 개정안에서는 ①등록 ②데이터 신고 ③사용 포장재 수량 신고(완전성 선언) ④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 업데이트의 의무를 명시
 - (등록) 개정안에 의거하여 기업이 포장재를 독일로 들여오기 이전에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
 -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외되며, 중앙포장재등록기관(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, ZSVR)을 통해 판매업자 등록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음
 - ZSVR의 데이터베이스(LUCID)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독일에서 포장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

- (데이터 신고)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양과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, 이를 기반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
 - 포장재의 양과 유형 등의 정보는 ZSVR에도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, ZSVR은 규정 준수가 필요한 포장 재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함
- (사용 포장재 수량 신고) 포장재 제조업체 및 유통업자는 매년 5월 15일까지 전년도 판매 수량 및 재포장 자재의 실제 사용 수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 - 해당 정보는 등록된 검사관의 인증을 받아 ZSVR의 데이터베이스(LUCID)에 전자로 제출되어야 함
 - 다만 해당 의무는 전년도에 판매된 포장재의 실제 수량이 다음 중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

포장재	유리	종이, 판지	철금속, 알루미늄, 플라스틱, 음료수 상자, 기타 복합재
판매량	80,000kg	50,000kg	30,000kg

- (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 업데이트) 개정안에 따르면 ZSVR은 독일 환경청과 협력하여 매년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을 제시해야 함
 - 재활용 가능성 평가 시에는 (i) 기술적으로 분류 가능해야 하며, 재활용 인프라가 존재해야 함 (ii) 개별 구성 요소의 기술적 분류 및 분리가 가능해야 함 (iii) 재활용 비호환성을 배제해야 함(포장 구성 요소 및 포장 재료에 포함된 물질이 모두 재활용 가능해야 함)을 확인 및 고려해야 함
-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각 브랜드의 품목별로 포장재에 대한 당국 등록이 요구되며, 실제 이로 인한 행정 소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각 제품별 별도의 등록이 요구됨

□ 「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(REGULATION (EU) No.2018/848)」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

-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(EC no.834/2007)의 개정판으로, ‘유기농 생산’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
 -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
 -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
-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,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
 - **(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)** 유기농의 정의를 ‘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’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,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
 -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‘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’으로 정의되었으나,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‘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(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)’로 정의
 - **(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)**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
 -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‘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,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%까지만 사용’할 수 있었음
 -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-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‘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’과 ‘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(GMOs) 및 이온화 방사선(Ionizing radiation)을 사용’하는 것을 금지함

- (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)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
 - 기존 규정에서는 (i)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,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(ii)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, 제품 중량의 2%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
 -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(ii) 항목을 수정하여 ‘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, 제품 중량의 5%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’ 확대 적용함
-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‘한-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’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
-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

□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

- 복합식품이란, ‘육류,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, 수산물, 유제품, 난류, 꿀, 로열젤리, 젤라틴,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, 향,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’을 의미
-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,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

- 반면 굴 추출물(수산물)과 간장(식물성 재료)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
-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
 - (함량 무관 식품)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
 - (함량 기준 분류)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(50%)을 기준으로 분류
-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
 - ‘비 상온 보관 식품’과 ‘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’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(Official Certification)를 제출하도록 함
 - ‘상온 보관 복합식품’의 경우 사설 인증서(Private Attestation) 제출이 요구됨
 -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(파스타, 빵, 제과류 등)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
 -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유제품, 난류,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

2. 수입제도

가. 통관제도

□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제출 → ②입항 → ③보세구역 반입 → ④도착 보고 → ⑤하역 및 검사 → ⑥수입신고 → ⑦세금 납부 → ⑧역내운송허가 → ⑨물품반출 및 화물인도 순으로 진행됨

단계	내용	
적하목록 제출	·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(ENS, Entry Summary Declaration) - 화물 상세 정보 제출(물품 명세, 수량 및 중량, HS Code, 컨테이너 번호, 위험품목 코드 등) - 화물 운송인, 송하인(수출업체), 수하인(수입업체)에 대한 정보 제출 -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제출	
	화물의 종류	통보기한
	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	출발지 선적 24시간 전
	장거리 벌크화물	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
	단거리 해상화물	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
	단거리 항공화물	비행기 이륙 전
	장거리 항공화물	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
	철도/운하운송 화물	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
	육로운송 화물	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
보세구역 반입	· 통관 전 물품 반입장소인 보세구역에 화물 장치 · 운송인 및 대리인, 통관절차 대리인,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도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	
하역 및 검사	·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세관당국이 검사 및 현장 출석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함	
수입신고	· 수입물품의 화주(납세의무자), 수입물품의 대리인(통관 대리인, 관세사)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 - EU 수입신고서,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, 원산지증명서 동봉	

*출처: 관세청

나. 검역제도

□ 독일은 유럽연합(EU) 회원국으로,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 지침을 따름

- 식물의 위생 상태, 식품의 위생,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, 잔류농약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
 -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함
 - 식물(화훼류 포함)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(Phytosanitary Certificate)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
 -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

□ 공식적으로 對독일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7개 품목 77종이며, 감자, 여주, 감귤 묘목 등 3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35종은 수출 불가함

수출가능 품목	· 곡류 : 쌀(백미, 현미), 보리, 밀, 수수, 콩, 팥, 녹두, 옥수수 · 과실류 : 사과, 배, 감, 단감, 포도, 참다래, 밤, 감귤, 복숭아, 자두, 살구 · 채소류 : 무, 당근, 배추, 양배추, 고추, 파프리카, 피망, 브로콜리, 오이, 호박, 수박, 참외, 멜론, 딸기, 토마토, 가지, 고구마 · 종자류 : 무, 당근, 배추, 양배추, 고추, 브로콜리, 오이, 호박, 수박, 참외, 멜론, 가지, 파, 양파, 상추, 토마토 · 버섯류 : 송이, 표고, 느타리, 팽이, 영지, 새송이, 양송이, 만가닥 · 절화류 : 튤립, 글라디올러스, 백합, 장미, 카네이션, 난초, 국화 · 화훼류 기타 : 선인장(절목선인장), 심비디움, 난초, 백합, 글라디올러스, 철쭉속, 장미, 카네이션, 국화, 튤립		
수출불가 품목	· 감자, 여주, 감귤 묘목		
수출불가 품목 (고위험식물)	· Acacia Mill. · Acer L. · Albizia Durazz. · Alnus Mill. · Annona L. · Bauhinia L. · Berberis L. · Betula L. · Caesalpinia L. · Cassia L. · Castanea Mill. · Cornus L.	· Corylus L. · Crataegus L. · Diospyros L. · Fagus L. · Ficus carica L. · Fraxinus L. · Hamamelis L. · Jasminum L. · Juglans L. · Ligustrum L. · Lonicera L. · Malus Mill.	· Nerium L. · Persea Mill. · Populus L. · Prunus L. · Quercus L. · Robinia L. · Salix L. · Sorbus L. · Taxus L. · Tilia L. · Ulmus L.

*출처: 「2021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」, 농림축산검역본부

- 특히 2021년 7월 5일 「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」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
-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

상대국측 우려병해충	· <i>Xanthomonas citri</i> pv. <i>citri</i> · <i>Xanthomonas citri</i> pv. <i>aurantifolii</i> · <i>Pseudocercospora angolensis</i> (T. Carvalho & O. Mendes) Crous & U. Braun · <i>Phyllosticta citricarpa</i> (McAlpine) Van der Aa
수출단지 지정신청	·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(수출단지 지정신청)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-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제출
수출단지 요건	·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-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-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-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
재배지 관리	·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-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「농약사용안전지침」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-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,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, 재배면적,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-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,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,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-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
재배지검역 신청	·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-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
재배지검역	· 지역본부장·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-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,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-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-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
선과	·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,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-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(SOPP)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
수출검역	·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-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,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<i>"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, points 57, 58. option(d), 59. option(a), 60. option(d) and 61. option(a)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2019/2072" (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(EU) ANNEX VII, 57, 58(d), 59(a), 60(d) 및 61(a)에 부합함)</i>

다. 라벨링 제도

□ 독일은 유럽연합(EU) 회원국으로, 2014년 시행된 EU 식품 라벨링 법을 준수해야 함

- 해당 규정은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의 외양, 식품 광고, 영양 정보, 알레르기 항원인자, 원산지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함
 -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
 - 고기나 생선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‘formed meat’ 혹은 ‘formed fish’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

〈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〉

· 제품명	· 보관 방법
· 제품 성분(원료) 리스트	· 회사명 및 주소
· 알레르기 항원인자	· 원산지
· 특정 성분의 함유량	· 사용법
· 제품의 실 중량(Net Weight)	· 도수(알코올 도수가 1.2%를 초과하는 경우)
· 유효기간	· 영양정보

- 영양정보의 경우 의무 기재사항 및 추가 기재사항(선택 기재사항)이 존재함

의무 기재사항	· 열량 · 지방 함량, 포화지방 함량, 탄수화물 함량, 설탕 함량, 단백질 함량, 소금 함량
추가 기재사항 (선택 기재사항)	· 불포화지방 함량, 폴리올 함량, 전분 함량, 식이섬유 함량,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

- 특정 식품에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

구분	식품 분류	표기 문구
공기 충전 포장 식품	공기 충전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된 식품	·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
감미료 함유 식품	감미료를 함유한 식품	· with sweetener(s) · 식품명에 표기
	설탕과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	· with sugar(s) and sweetener(s) · 식품명에 표기
	아스파탐 혹은 아스파탐-아세설팜 소금을 함유한 식품	· contains aspartame(a source of phenylalanine) ·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 · 원료 표기란에 표기
	폴리올 함량이 10% 이상인 식품	· excessive consumption may produce laxative effects

구분	식품 분류	표기 문구
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유 식품	리퀴리스 식물(Glycyrrhiza glabra)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100mg/kg 혹은 10mg/L 이상인 과자류나 음료	·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‘contains liquorice’ 표기
	리퀴리스 식물(Glycyrrhiza glabra)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4g/kg 이상인 과자류	·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‘contains liquorice -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’ 표기
	리퀴리스 식물(Glycyrrhiza glabra)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이나 암모늄염 함량이 50mg/L, 300mg/L 이상인 음료 (알코올성의 경우 함량이 1.2% 이상인 음료류)	·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‘contains liquorice -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’ 표기
고카페인 음료 및 카페인 첨가 식품	커피, 차를 포함하는 식품으로 식품명에 표기가 되지 않은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150mg/L를 초과하는 식품, 농축 혹은 건조 형태의 식품 중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이 150mg/L를 초과하는 식품	· High caffeine content,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-feeding women ·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·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
	생리학적 목적으로 카페인이 첨가된 식품(음료 제외)	· High caffeine content,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-feeding women ·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·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· 식품 보충제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 라벨에 1회 섭취 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 기재
착색료가 들어간 식품	· 착색료명이나 번호를 표기(예: Sunset Yellow, E110) · 부작용이나 어린이 주의 사항을 명시	

*출처: 유럽연합(<https://eur-lex.europa.eu/eli/reg/2011/1169/2018-01-01>)

對독일(EU) 농식품 수출 절차



1



>>>

2



>>>

3



<<<

공인경제운영인(AEO) 인증 획득

(필요 시) AEO 인증 중 1개 선택 취득

- AEO C : 세관 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
- AEO S : 보안 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, 세관 검사 혜택 부여
- AEO F : 세관 간소 및 보안 안전 혜택 부여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세관등록번호(EORI) 발급

통관 시 EORI 번호* 사용 의무

*EU에서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품목분류 사전심사(BTI) (필요 시)

수입신고 시 사용할 품목분류 코드 확정

- 정확한 세분 상품 분류번호 파악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5



<<< 선적 및 운송 <<<

4



수입신고

제출서류

- ①수입신고서 ②운임보험 ③상업송장 ④포장명세서 ⑤선하증권
- ⑥원산지증명서 ⑦관세가격보고서 ⑧기타 세관 요구 서류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적하목록(ENS) 제출

화물 유형에 따라 제출시기 상이

- 해상화물: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
- 장거리 벌크화물: EU 최초항 도착 4시간 전
- 철도/운하운송 화물: EU 세관 도착 2시간 전

제출정보

- ①화물의 상세 정보 ②운송인, 송하인, 수하인 정보
- ③운행 정보(운송 경로 등)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6



>>>

통관 및 검역

서류검사 및 물품검사

- 수입신고서 요건 충족 시 수입신고 수리
- (필요 시) 검사 및 샘플 채취

(동·식물 제품) 국경통제소(BCP) 검역 요구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회원국별 지정 국경통제소(BCP)

7



>>>

관세납부

(필요 시)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

- 한-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필요

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

8



반출(합격 시)

라벨 제작 표기언어: 독일어

표기사항: ①제품명 ②원료(성분)목록 ③알레르기 항원 정보 ④특정 성분 함유량 ⑤실 중량 ⑥보존기한/소비기한 ⑦보관방법 ⑧원산지 ⑨사업자 정보 ⑩사용방법 ⑪도수(필요 시) ⑫영양성분표 등

2021년 12월 기준

KATI
농식품수출정보